

제주사회복지신문

◇ 2020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064)702-3783~4/팩스:(064)702-3383 제148호

달라지는 2020년 제주 사회복지 시책

권역별 노인돌봄 책임기관제 운영

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등 총 2,683억원을 투입해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생활보장, 여성, 보건·의료 분야로 나눠서 2020년 달라지는 시책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노인분야> 돌봄 서비스 강화

도는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 공감 건강한 100세 만들기 위해 446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시범경로당을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체력인증교실 확대 등 경로당을 다기능 종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 구도심권에 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해 지역 간 균형 잡힌 노인여가 복지 구현에 힘쓴다. 노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11,350개를 제공하고 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인 참여자

로 자격을 완화하며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5개의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조손가구·고령부부 노인에게 다양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돌봄 책임기관제 운영(10개소)과 특화서비스제공으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분야> 삶의 질 향상 주력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 실현을 위해 40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도내 장애인의 수요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더불어 장애인회관(가칭)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등록 신장장애인으로 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1회 20만원 한도 내 혈관수술비를 신규 지원해 투석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외에도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안심 돌봄 서비스 확대, 로봇 활용 재활 서비스 신규 추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적용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분야>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도는 수놓음 육아나눔터 7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3월부터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

해 부모와 영유아가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7개소)을 통해 공보육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6~12세 아동) 신규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 4면에서 계속



▲지난달 10일 열린 '경자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회장 취임식'에서 참가자들이 축하 시루떡 컷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황 고승화 제8대 회장 취임식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0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경자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고승화 회장 취임인사와, 신임 시설장 인사, 제10회 명예의전당 등재자 시상, 참가자 교례, 축하 시루떡 컷팅식과 축배, 경품권 추첨, 떡국 오찬으로 이뤄졌다. 명예의전당 등재자로 선정된 홍영진 자원봉사는 1980년 장애학생 등 학교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장애인 차량이동지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주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

았다. 이 날 취임한 고승화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34년 역사의 초석을 송고하게 다져 오신 전임 회장님들과 선배 사회복지인들이 쌓아 오신 발자취를 발전 승화 시켜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가의 복지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회 복지환경의 급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계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졌다."며 "앞으로 사회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조정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8면

지면소개

- 신년메시지 2-3면
사회복지단체장 신년사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홍탁터
- 사회복지소식 4면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주력
- 특집 8면
"자원봉사는 누구나 실천 할 수 있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4주년

(창립 1986. 1. 28. 독립법인화 1998. 12. 12.)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 살기 좋은 제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승화 및 회원 일동

사회복지단체장 신년사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직능별 사회복지단체장들의 신년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싣는다. (단체별 가나다순) <편집자 주>



김 산 옥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
협의회장

가정폭력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앞장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장애인, 일반인 등 피해대상별로 지원하는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유형별 상담, 법률, 의료와 인식개선교육,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전체 이슈로 부각된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판결이 이어지는 사례가 생기는 등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폭력이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시작하여 예방,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폭력대응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력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지지자와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세 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장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최선

복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령사회에 들어서자마자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를 위한 과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의 해결책은 지역사회와 노인복지시설의 적절한 역할분담,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는 어르신들이 차별과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시설은 의료적 지원과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복지체계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저희 노인복지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노인복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원 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장

상생과 협력의 복지환경 조성

제주복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과 기관·단체장님들의 노고는 분명 값진 열매로 보상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새해 소망을 함축하는 의미로 상생과 협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명언처럼 비록 느리게 가는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은 서로 의논하고 최선의 공감대를 도출한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상생의 힘과 협력적 관계신장을 넓히는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저희 협회는 지속적으로 이동복지관 사업을 유지 확대시켜 나아 갈 것이며, 교육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한 사람의 작은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건강과 새로운 번영을 기원 드리며, 지역사회의 행복창조를 위해 우리 함께 합창하는 복지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강 지 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장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노력에 매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아동을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저출산 시대 앞에서 더 이상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실천 없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유일한 희망인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지원과 온전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여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함께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은 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지역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노력

커뮤니케어정책의 도입으로 복지영역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촘촘한 협업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시설이라도 지역 안에 들어 서려면 만만치 않은 주민의 저항(님비현상)으로 도리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지역 안에서의 통합 돌봄이 요원한 일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복지는 어디에나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한다’ 복지요결을 여러분도 기억하실겁니다.
경자년 새해, 우리 함께 각오를 다져보면 어떨까요? 현장에 함몰됨을 경계하고 ‘복지, 어디에나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해야 한다’ “그리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복지수혜계층의 삶이 비로소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성 덕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시대흐름에 맞는 재가복지사업 추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수발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재가복지 및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난 해는 이런 요청에 응답하여 커뮤니티케어와 노인맞춤돌봄이라는 새로운 제도정립을 이루는 과도기이자 발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인복지의 질을 높여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가복지 사업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제대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실천방안을 개발하여 재가노인복지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장 신년사



안 명 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아동이 행복한 정책수립을 기대하며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누구나 더 나은 꿈을 꾸고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아동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 역시 그러한 꿈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또다시 부푼 가슴을 안고 바라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처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OECD지표에 학업성취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상위 에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살이나 비행이 아닌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가 현장에까지 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고 민 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협의회장

가정 밖 청소년 자립돕기 집중

도쉼터협의회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연합거리상담과 도내외 진로캠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모색 토론회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토론회는 뜻 깊은 사업이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수준인 이때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도록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남을 돌봐야 하며 내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참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 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장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 위해 노력

2020년은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상징인 하얀 쥐의 해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緣起)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의 평안도 함께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에는 2개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 11월23일(월)에 1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며 5월 제주시 동쪽지역에 분관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별 외부 현장체험학습(8회) 등 노년사회화교육 47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에 속해있는 양 기관은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앞장서며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봉 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에 앞장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슬로건은, 장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업의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민간에서 소외받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대안으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준 도정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준 도의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 고용안정에 기여해주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근로장애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난 한해 어려움을 헤쳐나간 그 자리에 더 큰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박 정 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장

정신장애 사후관리 및 지원확대 집중

저희 지회에서는 올해도 정신장애 가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곳곳에 엉켜있는 매듭을 함께 풀어가는 피스메이커(중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신장애인과 가족, 전문가의 의견들이 통합되고 인권과 치료권이 동시에 존중받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여 고위험을 낮추고 정신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전 예방과 상황에 맞는 대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정신장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아름답고 든든한 동행으로 상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2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68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589개 ▲(주)천생보이=음료 1,730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 317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92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2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130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9,802개 ▲듀레쥬르 제주탐라점=빵 643봉 ▲모양=빵 284봉 ▲미인빵=빵 221봉 ▲바바오럼=빵 139봉 ▲비엔누아즈=빵 166봉 ▲윤진호 정형외과=쌀10kg 100포대 ▲소민떡방=떡 213개 ▲손뜻모아봉사회=참기름 60개 ▲수체육관=라면 142개 ▲약속다방=수제쿠키 128개 ▲연세유유제주대리점=유제품 576 ▲이든이네=멸치 2.5kg 6박스 ▲임상용=감귤 10kg 10박스 ▲정필이오메기=떡 51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63개 ▲참새방앗간=떡 1,441개 ▲코시롱뚝비=두부 50개 ▲특무관=라면 486개 ▲파과무베이커리=빵 55개 ▲해맑은 떡방= 175개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18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복지정보 알림' - 보도자료 접수'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2020년 제주 사회복지 정책

1면에서 계속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주력



<생활보장 분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도는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1,39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1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 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제주도내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선다.

도는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공간인 제주복지 이음마루를 조성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상향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여성 분야> 여성·가족 행복한 삶 추진

도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1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속적인 여성일자

리 지원과 함께 여성취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직장 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예방 서

비스' 사업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15곳에서 17곳으로 추가해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 도민 건강수준 향상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25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치매안심병원을 개소하고,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

화 등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전담 연구 인력을 확보해 정확한 현황 진단 및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의 '제주형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신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팀

운영 및 정신응급의료기관(1곳)이 시범 운영되어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응급환자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고위험군 간질환자(만20세~49세 만성간질환자)에게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20~'21절기부터 중 1학년(현 2007년생)까지 무료 대상이 확대된다.

다양한 사회복지정보 제공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제주도내 다양한 사회복지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와 관련된 사회복지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지표(2014~2017)'를 펴냈다.<사진>

이번 책자에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로 인한 사회복지의 수준 변화를 반영했으며, 4년 단위로 이뤄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욕구와 실태를 제시할 수 있는 신규 지표들을 상당부분 삽입해서 수록했다.

이와함께 '2019 제주사회복지편람'도 발간했다. 사회복지편람에는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제주지역 853개 사회복지시설·단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현황과 자원봉사 활동 내용 등을 담았



다.

또한, 제주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 15주년 운영보고서와 사랑나눔푸드마켓 10주년 운영보고서도 발간됐다.

제주도푸드뱅크 보고서에는 푸드뱅크 주요기능과 사업 소개, 운영위원회 안내, 15년간의 실적, 사진으로 보는 푸드뱅크 등을 실었다. 사랑나눔푸드마켓 보고서는 이용자 선정기준과 기부효과, 사랑나눔푸드마켓 소개, 10년간의 운영성과, 장기기부자 인터뷰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현안 문답회 성황 (問答會)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달 21일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현안 문답회(問答會)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원, 묻고 답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문답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

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문답회에는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과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진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수학교 자녀 안심 통학버스 정보 제공

제주도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특수학교 학부모에게 실시간 통학버스 운행 정보 등 '자녀 안심 통학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ICT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 콘텐츠 개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완료한다.

그 일환으로 '이동형 IoT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고정밀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학부모에게 실시간 통학버스 운행 안내,

'자녀 안심 통학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 안심 통학 정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특수학교 버스 11대(영지, 영송, 온성)에 ICT 융합 서비스를 접목해 학부모와 교육청에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년도까지 해당 버스에 고정밀 위치기반 GPS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고 관제서비스를 시험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학부모가 집에서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통학버스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주)카카오와 협력해 서비스를 추진키로했다.

또한 앞으로 서비스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대중교통 기반 안전센서(차선이탈, 동공감지 등)의 IoT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업 모델인 '조정밀 버스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왔다.



사회복지협의회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가결연후원	920,000	43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2,445,000	2,445,000
복지사업후원	1,005,000	463,730
푸드마켓후원	3,020,000	312,470

발행안내

- 발행인: 고승화
- 편집인: 김성건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편집기자: 김승지
- 편집위원실: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하늘출판인쇄

소/식/마/당

(무순)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



현대모비스(주) 제주부품 사업소(센터장 안정현)는 지난달 14일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를 방문해 설맞이 환경정비 활동과 함께 후원품을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제주영업소는 물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제주시동백센터와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지원사업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김유선)은 지난달 10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청년지원사업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취약계층 청년지원사업 운영에 협력하고, 대상자 추천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기로 했다.

옷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고민좌)는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쉼터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6회에 걸쳐 '나만의 옷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입소청소년들이 원단을 이용해 재봉틀로 나만의 팬투맨을 만드는 사회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원단에 대한 지식 습득, 재봉틀 사용법과 사용 시 유의할 사전 안전교육을 듣고 진행됐다.

이웃사랑 물품 기부



나드리뷔페(대표 김병화)는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기부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약 10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쌀 350kg)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PT운동 실시



참장애활원(원장 정은경)은 올해 12월까지 2020년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 신청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개인별 1:1PT운동을 진행한다. 참장애활원 관계자는 "PT운동과 함께 단체 체육활동도 운영하면서 운동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등 1년 동안 좀 더 즐겁고 활기찬 활동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미용 봉사활동 눈길



뷰티봉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을 방문해 40명 어르신의 이·미용 봉사를 지원했다. 김진우 원장은 "그동안 양로원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뷰티봉사회에게 감사 드린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제6회 정기연주회 성황



구좌어린이합창단(단장 박순태)은 지난 12월 28일 평대초등학교 꿈나래관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연주회는 부모님께 노래로 응원하고,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노래로 답하는 특별한 순서가 모든 관객을 감동케 했다. 구좌지역내 지역아동센터(해바라기, 종달, 우리하도)가 연합해 2014년 9월에 창단한 이래로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장 나누기 행사 마련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 12월 23일 '한국 친정엄마와 결혼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김장나누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좌읍나빌레라무용단 어머니들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친정엄마가 되어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만든 김치는 구좌읍 관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됐다.

힐링 음악회 공연 선봬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는 지난해 12월 센터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행사에 참여해 플루트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먼저 16일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제주아너소사이어티 송년의 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7일 세기자동차공업사 송년의 밤 행사 식전 공연, 29일 일도2동 동민 송년힐링 음악회에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꾸준한 나눔 실천 훈훈



나눔 그리고 동행(회장 이 용)은 지난 12월 21일 흥익영아원(시설장 고봉운)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145만원을 전달했다. 나눔 그리고 동행은 제주대학교 수화봉사동아리 푼난소리에서 활동하던 선후배 회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는 취지로 결성되어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신년 다짐 행사 가저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센터장 강은정)는 지난달 23일 컨싱턴리조트에서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용 장애인, 보호자 등을 초청해 송년회를 열었다. 송년회는 '나, 너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희망동화이야기'를 주제로 축하공연과 만찬의장, 희망댄스동아리 발대식, 간담회 등으로 진행돼 가족들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노숙인 송년캠프 실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최근 다인리조트에서 1박 2일 동안 노숙인과 노숙우려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캠프를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 날 캠프에서는 한 해 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기억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과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론

참 작은 굴

서른 해 이웃, 길 건너 아주머니가 굴을 갖다 먹으라 한다. 아내가 차를 갖고 과수원에 가 두 컨테이너에 담뿍 싣고 왔다. 철철이 공으로 굴을 주는 정겨운 이웃이다. 거저 받아먹는 것도 도를 넘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아주머니는 올해 예순다섯 나이에 7천 평 농장을 해내고 있는 분이다. 대농이다. 여간한 깡냥인가. 옆에 일을 털어 주는 군 손도 없다. 십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혼자다 됐지만 그 농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여간한 강단이 아니다.

현관 앞에도 놓고 보니 한눈에 여느 굴하고 다르다. 알알이 참 작다. 골프공보다 작다. 고 작은 것들이 컨테이너 두 개에 그득 차 있다. 어림이 안 되지만 잔디마당에 쏟아내 세어 보면 수 천 개가 되리라.

비상품이라 하지만 놀랐다. 많은 양에 놀랐고, 그것들 하나하나 다 노릇노릇 익어 있는데 놀랐다. 작아도 땡글땡글을 차지 않은가.

저게 어떤 것들인가. 작아도 다른 것과 똑같이 손이 간 것들이다. 거름 주고 약치고 가지치기하고. 그뿐이라. 지난 초가을, 두세 번 지나간 태풍에 주인의 애간장을 태울 만큼 태웠다. 가지에 부딪쳐 생체기가 나면 어쩌나, 낙과하면 어쩌나, 당도가 떨어지면 어쩌나. 얼마나 조바심 쳤을 것인가.

방풍이 잘됐는지 껍질에 살짝 굵힌 자국 하나 눈에 띄지 않는 해말숙한 얼굴이다. 주근깨며 뽀루지 하나 없는 어린 소녀의 깔끔한 민낯 같다.

한 알 까 입에 넣는다. 달다. 참 달다. 놀라운 단맛이다. 먹는데 크기는 문제될 게 없다. 짐작에, 흔히 굴의 당도 마지노선이라는 13부릭스는 너끈히 될 것 같다.

‘작아도 아지망’이라고, 작아도 굴이다. 외려 당차 보인다. 저것들, 주인의 애정 어린 눈빛 속에 가을을 맞았을 것이다. 조금도 털함이 없었을 것 아닌가. 햇볕 또한 공평했으리라. 아침마다 내리는 무서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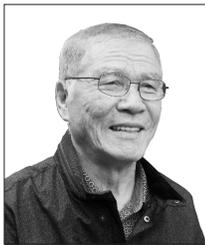
맞으며 한낮에 내려쬐는 별에 저렇게 결실로 완성한 엄연한 성과(成果)가 경이롭다.

저것들이 내게 육(肉)보시한다고 우루루 현관 앞에 몰려와 있다. 굴을 먹는 것은 일방적인 쾌락이다. 텃석텃석 꺼내 들어도 되는 일인가.

참 작다. 작아도 큰 것 못잖게 달다. 품을 만큼 가을별을 품었으니 달 만큼 단 것일 테다. 어린애 눈깔사탕 먹듯 입에 속 밀어 넣고 오물거린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게 어떻게 온 것인가. 녘죽녀죽 받아 먹기만 할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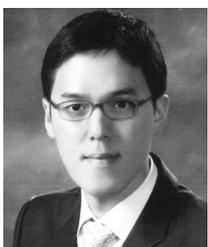
자신과 들레를 돌아보게 된다. 이제 겨울이 한창이다.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67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한국 체류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여성 A씨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 B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증후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로부터 별다른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시어머니의 요구로 일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다. A씨

가 다른 직장에 다닐 때에도 시어머니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며느리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을 하라고 하며 집에서 내쫓았다. 남편 B씨는 A씨가 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내를 친척 언니네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이후에 아내가 소재불명이라며 허위로 가출신고를 하고 신원보증 철회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을 하기도 했다.

부부 및 가족간의 불화로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기에 이르렀고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 B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통해 혼인신고 후 불과 1년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다. A씨는 계속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기대와 달리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규정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출입국사무소는 이혼 판결문상 A씨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규정의 해석상 꼭 전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책임이 남편인 B씨에게 있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씨는 이혼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판결이다.

칼럼

가요무대

멀티미디어 시대 TV에서 다양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내가 선호하는 교양·오락프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공영 채널에서 방송되는 ‘가요무대’를 즐겨 보는 게 위안이 된다.

내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다. 노래 속에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 시절의 아스라한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장년이 된 이 시점에 유행가에 얽힌 젊은 날의 희로애락을 추억하고 싶은 것이다.

가요무대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를 조명한다. 농경시대에서 오늘날까지 삶에 얽힌 사연들과 당시의 사회상이 생생하게 투영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후략> 1923년 최초로 음반에 수록된 대중가요 「희망가」에서부터 지금에 유행하는 모든 대중가요를 총망라한다.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시류를 반영한다. 일제 강점기 고향과 나라를 잃고 타향을 전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노래한 「타향살이」는 동포의 가슴을 적시며 눈물짓게 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트로트와 신민요가 주도했다. 지금까지도 널리 애창되는 「비 내리는 고모령」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절절한 비애로 표현했다.

정부 수립 직후에 「가거라 삼팔선」과 한국전쟁 이후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은 궁핍하고 어렵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지금도 애창되고 있다.

1960년대는 미국풍 대중가요인 스탠더드 팝이 주류가 되면서 「노란 사쓰의 사나이」가 크게 유행했다. 1960년대 중반 「동백 아가씨」를 필두로 「섬마을 선생님」 등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는 포크송과 록의 부상으로 「꽃반지 끼고」 등이 히트했으며, 비판적 포크의 대표곡으로 거론되는 「아침이슬」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1980년대는 「창밖의 여자」를 필두로 스탠더드 팝의 선율에 록을 결합하면서, 화려한 화성과 선율의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냈다.

가요무대는 시대별로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골고루 들을 수 있다. 사랑·이별 등 여러 테마가 특색 있게 펼쳐지고, 애청자의 신청곡이 방송된다. 신청곡에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녹아 있다. 부모님께 불효한 후회, 옛 친구와 지난날을 추억하는 그리운 사연들.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노래를 들으며 세대의 공감을 이룬다.

삶의 모습은 달라도 전해 듣는 사연으로 애청자는 동질감을 느낀다. 한 세대를 품었던 불세출의 가수나 작사·작곡가의 일대기도 소개된다. 그들은 가고 없어도 감미로운 선율은 옛 추억과 함께 우리 곁에 흐른다.



문익순
수필가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⑥

해피유스스쿨(교육·학습)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활동 활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피유스스쿨(단장 김민주)은 지난 12월 14일 제주시 일도이동에 위치한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 날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해피유스스쿨 단원들과 함께 패브릭 마카를 이용해 직접 에코백

을 꾸미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해피유스스쿨은 2016년 4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됐다.

현재 총 12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각 1회씩 쿠키 나눔 봉사, 페이스페인팅 체험활동, 거리정화 활동 등을 계획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김순희

센터장은 “봉사단이 쿠키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전달해주는 케이크, 머핀 등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간식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단장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소양과 함께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봉사단체인 ‘해피유스스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원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고,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 실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운영)는 지난달 15일 새해를 맞아 지역본부에서 사랑의 헌혈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사회 관계자는 “오늘 시행된 사랑의 헌혈 봉사는 2020년에

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올해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어려운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마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 기탁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 임직원 일동은 지난 12월 27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805만7,98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사진>

이 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 1,428명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



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이용인원 모집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센터장 고은호)는 센터 이용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립 생활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개인 욕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방문(제주시 이도이동 1063-6, 3층) 또는 전화(064-901-4535)로 접수하

면 된다.

대상은 뇌병변 및 지적, 발달 장애인이며,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 이용은 방문 또는 전화 접수 후 상담을 거쳐 이용인 개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된 후 가능하다.

이웃돕기 사랑의 쌀 나눔

제주에너지공사(사장직무 대행 노희섭)는 지난달 17일 제주시청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10kg 95포대를 기부했다.

공사는 해마다 명절인 설과 추석에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쌀을 기부했다. 제주도내 지원의 손길이 부족한 취약·저소득 가구에 직접 쌀

을 전달했다. 기부된 쌀은 도내 취약계층과 저소득 95가구에 설날 전 모두 배분했다.

공사 관계자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불우한 가정에 직접 쌀을 전달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소외되는 가구 없이 모든 이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⑥ 희망나래일터

경쟁력 있는 품질·가격으로 만족도 높여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희망나래일터’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희망나래일터 소개
희망나래일터(원장 박인향)는 디자인, 인쇄, 쇼핑백, 판촉물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우편발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70%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사

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디자인·인쇄
희망나래일터 생산품은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설비,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그 결과 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교재, 자료집부터 소·대봉투, 명함, 사원증, 현판, 현수막 등 다양한 인쇄 관련 아이템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생산제품은 전부 출력부터 재단,



▲ 왼쪽부터 인쇄물, 쇼핑백, 우편발송작업물

제본, 포장, 배송까지 장애 사원이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 쇼핑백·기념품
희망나래일터에서는 도내 유일의 쇼핑백 후가공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사원들이 전 공정을 책임지고 가공하는 등 직접생산과 가공으로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품목으로 정부화일, 진행화일, 보존상자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 기념품, 답례품, 홍보물, 행사용품, 기업체 납품 등을 통해 고객들의 마케팅 및 홍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우편발송 사업
도내 유일의 디지털 우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DM(우편발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DM사업은 안전하고 체계화된 주소록 출력 시스템 도입으로 우편물 제작과 발송까지 책임지고 있다.

제10대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홍영진씨 인터뷰

☞ 관련기사 1면

“자원봉사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제10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

당에 이름을 올린 홍영진 자원봉사자(65)가 그 주인공이다. 홍영진 자원봉사자를 만나 명예의 전당 등재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40년간 꾸준한 봉사실천 차량이동 자원봉사 등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예요. 봉사는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 시절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랐던 홍영진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은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홍 자원봉사자는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데 시계가 없어 휴가 때 시계를 사고 갔었다. 큰 일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전역 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계기를 말했다.

이후 홍 자원봉사자는 1980년 장애학생 등학교 지원 봉사를 시작으로 1986년부터는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에서 교통봉사대와 장애인 차량이동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요양시설 주방봉사를 통해 170여 명의 만성 정신 장애인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청소년 이발봉사 및 학용품지원과 홀로 사는 어르신 밑반찬 배달봉사·조손가정 후원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다. 그 결과 홍 자원봉사자는 약 40년 동안 총 1,035

회 3,566시간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홍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하면 매일매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을 때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봉사활동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홍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수송,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지역사회행사 지원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홍 자원봉사자는 “봉사



▲ 왼쪽부터 부형중 회장 직무대행, 홍영진씨, 전 명예의 전당 등재자 김영순·고관용씨

활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전혀 특별하지 않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봉사활동이다. 현장에 가면 아직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사례발표 (중)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싶어요”



한민철 손뜻모아봉사회

중학교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회를 알아보던 도중 손뜻모아봉사회를 소개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과연 봉사를 잘해낼 수 있을지 설

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때 회원 분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신 덕분에 봉사 환경에 적응하는데 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뿌듯함

을 느꼈고, 다른 분들과 협력해 일을 끝낸 것에 대해 동질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안 정화 활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돌 사이사이에 그물망, 심지어 신발들까지 많은 쓰레기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염된 바다를 깨끗이 정화함으로써 본래의 푸른 바다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봉사회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운을 받았습니다.

처음 회원분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 오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모든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전문적인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엄마들에게 배운 인내심



김영환 화북윈드오케스트라 단장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절대 속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았던 예쁜 장미꽃이 드디어 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피어나지는 않았습니 다. 끝내 꽃을 피우지 않은 꽃봉오리도 있습니다.

금년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요청으로 화북윈드오

케스트라가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색소폰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쁜 장미꽃이 꼭 피어날 것이라는 엄마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함께 애 태웠던 느낌을 적어 보았습니다.

악기는 보통 사람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은 했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

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도 했지만 엄마들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엄마들이 보여주는 그 인내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은 겁이 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느끼고 배우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될 것이기에 내년에도 색소폰교실을 열 생

각입니다.

저희 화북윈드오케스트라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청소년중심의 관악밴드 단체입니다. 저희는 나눔장터 등에서 축하연주 등을 1년에 4차례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2019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례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3회에 걸쳐 실는다.